

장흥FC, 추계중등축구 전국 정상에 서다

김진우 후반전 친금의 결승골
경기도 여강글로벌FC 1-0 승
김재민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잇단 수상 접경사



장흥FC 선수들이 2022 전국추계중등축구대회 정상에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장흥FC가 2022 전국추계중등축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장흥FC는 최근 충북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열린 2022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결승에서 후반 5분 김진우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경기 여강글로벌FC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장흥FC는 이번 대회에서 인천포탈파크(3-2), 제주서귀포축구센터(1-0)를 차례로 꺾고 16강전에서 서울신천중을 4-1로 대파, 8강에 진출했다. 8강전은 피말리는 승부였다. 부산수영SC와 1-1로 비긴 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5-4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준결승전에서도 경기백마중을 3-2로 제압했다. 장흥FC는 준결승전까지 무려 32골을 몰아넣은 경기 여강글로벌FC와 박빙승부를 벌였다.

장흥FC는 경기 여강글로벌FC의 막강한 득점력을 철저히 틀어막고 후반 5분에 터진 김진우의 골을 끝까지 지켜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우승을 차지한 장흥FC는 개인상 수상의 접경사도 함께 누렸다.

주장 김재민이 최우수선수상을, 노다니엘이 베스트플레이어상, 김현서가 GK상, 수비상을 김현강이 수상했다. 김동근 감독과 김재민 코치는 각각 최우수지도자와 우수지도자 상을 받았다.

장흥FC 김동근 감독은 "우리는 전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라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짐으로 준비했다"며 "선수들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잘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가르시아, 예선 치른 선수 첫 여자테니스 WTA 1000 우승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는 가르시아. /연합뉴스

카롤린 가르시아(35위·프랑스)가 예선을 치른 선수로는 처음으로 여자프로테니스(WTA) 1000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가르시아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WTA 투어 웨스턴 앤드 서던 오픈 마지막 날 여자 단식 결승에서 페트라 크비토바(28위·체코)를 2-0(6-2 6-4)으로 물리쳤다. 가르시아는 이번 대회 예선을 통과하고서 64강 토너먼트를 치른 끝에 우승했다. 4대 메이저 대회와 시즌 최종전인 WTA 파이널스 다음 등급인 WTA 1000 시리즈 대회에서 예선부터 경쟁한 선수가 단식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르시아는 WTA 투어 통산 10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993년생으로 올해 29세인 가르시아는 2018년 커리어 하이인 세계랭킹 4위까지 올랐다가 완만하게 하락세를 타던 선수다. 그런데 올해 5월 개막한 메이저 대회 프랑스오픈 복식에서 우승한 것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다. 이후 이날까지 투어 단식 우승을 3차례나 일궜다. 이번 대회에서는 마리아 사키리(3위·그리스), 아리나 사발렌카(7위·벨라루스) 등 10위권 강자들을 제압하고 결승까지 올랐다. 올해 5월 79위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35위까지 올라온 가르시아는 이번 우승으로 17위 정도까지 랭킹이 상승할 전망이다. 같은 대회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결승에서는 보르나 초리치(152위·크로아티아)가 스테파노스 치치파스(7위·그리스)를 2-0(7-6(7-0) 6-2)으로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연합뉴스

안세영, 속적 야마구치 넘어라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22일 개막...준결승에서 맞대결 전망

올해로 27회를 맞는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아직 단식 종목 금메달을 단 한 차례도 획득하지 못했다. 1977년 스웨덴에서 처음 열린 세계개인선수권 대회는 개인전 5개 종목(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 중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 대회다. 한국은 남자 복식에서 4차례, 여자 복식에서 1차례, 혼합 복식에서 5차례 우승을 일궜지만 유독

남녀 단식 종목에선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45년 무관의 역사를 끝낼 주인공으로는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이자 세계 랭킹 3위인 안세영(20)이 가장 유력하다. 안세영은 22일부터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 출전한다. 부전승으로 32강에 오른 안세영은 24일 첫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와 말레이시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준결승에서 상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랭킹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의 대결이 우승을 위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은 2019년 프랑스오픈 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처음 만난 야마구치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뒤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도 야마구치를 2-0으로 제압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후 열린 2021 BWF 월드투어파이널과 2021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야마구치에게 연달아 패하면서 열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열린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 결승에서 펼쳐진 11번째 맞대결에서도 야마구

치에게 패하며 통산 전적 4승 7패로 뒤져 있다. 김가은(24)과 심유진(23)도 한국의 여자단식 첫 우승을 위해 출사표를 냈다. 2022 세계남녀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체 우승의 주역인 김가은과 심유진도 상위권 성적이 기대된다. 남자단식에는 2019년 제7회 세계군인체육대회에서 우승한 허광희(27)가 홀로 출전했다. 여자복식에선 세계 3위 이소희(28)-신승찬(28)과 4위 김소영(30)-공희용(26)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25)-최솔규(27)-강민혁(23)-김재환(26)도 2014년 고성현-신백철 이후 8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서승재와 최솔규는 각각 채유정(27)과 신승찬과 짝을 이뤄 혼합복식에도 나선다. /연합뉴스

높이뛰기 마후치크 '우크라이나를 위한 금'

유럽육상선수권 높이뛰기 우승

"9월에는 꼭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야로슬라바 마후치크(21·우크라이나)의 2022 유럽육상선수권대회 여자 높이뛰기 우승 소감은 특별했다.

마후치크는 22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대회 여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1m95를 넘어 정상에 올랐다.

마리아 부코비치(30·몬테네그로)도 1m95를 넘었지만, 성공 시기에서 순위가 갈렸다.

마후치크는 1차 시기에서 1m95를 성공했고, 부코비치는 3차 시기에서 넘었다.

경기 뒤 마후치크는 세계육상연맹, 애슬레틱스위클리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 메달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바친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나는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강하다.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의 도움 속에 대회를 치르고 있다.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9월에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



유럽육상선수권 여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한 우크라이나의 야로슬라바 마후치크. /연합뉴스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이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마후치크도 6개월 동안 고향을 찾지 못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고향 드니프로를 떠나 조금 더 안전한 국경 근처로 옮겼고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육상선수권을 앞둔 3월에는 독일로 떠났다. 이후 세계육상연맹과 여러 단체의 도움 속에 독일에서 훈련했다. 마후치크는 "정말 혼란스러웠고, 훈련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은 뒤 "그러나 내가 왜 높

이뛰기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니 집중력이 생겼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내가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리는 게 조금이나마 조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올해 마후치크는 3월 베오그라드 세계실내육상선수권 우승(2m02), 7월 유진 실의 세계선수권 2위(2m02), 8월 유럽선수권 우승(1m95)의 성과를 냈고, 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

이창호 넘은 신진서...선수권대회 첫 5연패 위업

GS칼텍스배, 변상일 꺾고 우승

신진서(22·사진) 9단이 한국 바둑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랭킹 1위 신진서는 22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7기 GS칼텍스배 결승 5번기 제3국에서 변상일(25) 9단에게 173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이로써 신진서는 종합전적 3-0으로 변상일을 누르고 선수권대회인 GS칼텍스배에서 23기 대회부터 5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전기 우승자가 타이틀 방어를 위해 결승에서 기다리는 '도전기'가 아닌 1회전부터 출전하는 '선수권전'에서 5연패를 달성한 것은 신진서가 처음이다. 중전 선수권전 최다연패 기록은 이창호 9단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천원전에서 달성한 4연패다. 32개월째 랭킹 1위를 질주 중인 신진서는 23년 만에 이창호를 넘어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지난주 국수산맥배 국제배둑대회 결승에서 변상일을 꺾고 우승했던 신진서는 국내와 세계대회를 통틀어 8관왕을 지켰다. 이날 최종국이 된 3국에서 신진서는 우상귀 전투에서 백 대마를 잡아 우세를 확보한 뒤 우하귀 백진을 파괴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신진서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GS칼텍스배는 저와



인연이 깊은 대회라고 생각해 꼭 우승하고 싶었는데 다시 우승자의 자리에 서게 돼 기쁘다"라며 "5연패에 대한 욕심은 당연했고, 그래서 더 긴장하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세계대회 우승도 중요하지만, 국내대회는 한국바둑의 뿌리라고 생각한다"라며 "GS칼텍스배를 비롯한 많은 대회에서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밌는 바둑을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라고 덧붙였다. 2018년 23기 GS칼텍스배에서 이세돌 9단을 3-2로 꺾고 첫 우승컵을 거머쥔 신진서는 24기와 25기 대회에서 2년 연속 김지석 9단을 3-0으로 꺾었다. 지난 대회에서는 변상일과 접전 끝에 3-2로 승리해 4연패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리턴매치에서 완승을 했다. GS칼텍스배 우승 상금은 7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헌트
- 2관 한산: 용의 출현
- 3관 늑
- 4관 헌트, 미니언즈2
- 5관 늑, 바다 탐험대 옥토퍼: 탐험선 대작전
- 6관 헌트
- 9관 한산: 용의 출현
- 7관 세네케를 늑, 탐간: 매버릭,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팻
- 8관 세네케를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11시 음악산책
독일음악의 성지, 라히처히
일시: 2022. 8. 29.(월)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1
김동현 무반주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2022. 9. 5.(월)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